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 명 선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The Influence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ult Women

Myung-Sun Chu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3. 2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ult wome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511 adult women living in Kwangju, Korea.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variance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cross-ta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ocuses of respond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re largely centered on facial and skin texture improvement and hair styling. The frequency of all the plastic surgeries was not so high, but intention of them was much higher than the practice.
2. The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e respondent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lf-esteem.
3. The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e respondent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v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excluding plastic surgeries.
4. The self-esteem of respondent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ver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excluding plastic surgeries.

Key Words: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self-esteem(자존심),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관리 행동)

I. 서론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컬러, 텍스처 혹은 형태의 장식과 의복을 이용하여 타고난 신체의 형태를 바꾸거나 감추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외모를 관리하고 있다. 이 때 개인의 신체는 의복과 장식을 위한 토대가 되며, 개인의 신체에 착용된 의복이나 장식의 컬러, 텍스처 및 형태가 각각의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신체의 형태와 크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화장품, 헤어스타일링, 액세서리 및 의복을 이용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체적 외모를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패션제품과 미용제품 광고들은 광고되는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실제보다 더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 자각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외모를 감시하고, 유지, 변형,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제품구입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신체적 매력성 향상, 혹은 신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모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외모가 자아만족을 위해서는 물론 개인의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정명선·김재숙, 2001), 그리고 외모 관리가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 향상에 이용될 수 있으며(Daly et al., 1983),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라는 관점(Aune & Aune, 1994)에서 볼 때, 여성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얼굴 매력성과 다른 신체적 속성들이 상당부분 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만 신체적 매력성은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개념이며, 의복, 화장품, 성형수술이나 복원 수술, 다이어트, 및 운동이 지각된 신

체적 매력성에 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Kaiser, 1990).

그러나 외모관리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를 일반인으로서의 좀처럼 성취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지닌 광고 모델이나 연예인들의 신체와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도 과도한 다이어트, 약품 사용 및 성형수술에 따른 폐해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외모지상주의가 초래하는 병폐로 간주하는 시각이 대두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화장, 헤어스타일링, 의복과 액세서리 착용 이상의, 주로 체중감소 목적으로 행해지는 극심한 다이어트나 운동, 실사제나 구토제 복용, 지방흡입 시술 및 얼굴과 여러 신체 부위에 행하는 각종 성형수술 등 고통과 위험을 수반하는 외모관리행동의 부작용은 간과될 수 없는 범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외모관심, 외모관리 행동, 외모관련 제품의 사용이 극단적일 때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외모관리에 소비하는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외모관리의 정확한 실태를 구명하는 것이 여성들의 극단적인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의 선행요건이기 때문이다.

Kefgen과 Touchie-Specht(1976)는 한 여성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의 능력, 흥미, 가치와 무관하게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신체를 위장하기 위해식이요법, 운동 및 착의에 많은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Rand와 Hall(1983) 또한 여성들이 실제 보다 돋보이는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및 컬러를 이용하고자 하는 빈도가 그들에게 부족한 곳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Bloch와 Richins(1992)는 화장품, 두발 염색, 혹은 의복 같은 외모 향상을 위한 제품의 이용이 자존심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인 여성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이 그들의 자존심 및 외모관리 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과 자존심 및 외모 관리 행동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구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이러한 측면의 국내 연구들로는 이상적인 미, 신체 이미지와 외모행동(이승희·Rudd·김재숙, 2001),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정재은·남윤자, 1999), 비만도와 신체 만족도(이경화·류은정, 2001),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심정은·고애란, 1997), 의복행동,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의 관계(황진숙, 2000) 등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도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 변인들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 지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실태를 파악한 후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 및 외모관리 행동과 관련성을 갖는가, 자존심이 외모 관리 행동과 관련성을 갖는가를 경험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한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실태 파악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의 구명은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도, 외모불안, 외모관리 행동, 자존심, 자기 효능감 등에 관한 미래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연구의 대다수가 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 특질 귀인, 혹은 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소수의 연구는 지각 대상의 시각으로부터 매력성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 연구들 중 약간은 대상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지각을 검토했다(Garcia, 1998).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검토한 연구들은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둘 모두의 매력성 수준에 대한 개인

자신의 시각을 검토했으며, 자아-평가가 다른 성격 특성의 함수일 것으로 보았다. Gabriel 등(1994)은 자기도취 점수가 높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했으며, Cash 등(1983)은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매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Thornton과 Ryckman(1991), Thornton과 Moore(1993)는 개인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신념이 성격 특성들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Bruch 등(1998)도 매력성 자아지각이 생활 만족 및 긍정적 감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을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여성들이 바람직한 감정적 특성들을 나타내기 쉽다고 하였다.

한편, Lennon(1988)은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적 매력성 결정에 매우 중요한 2개 요인들이 체중과 얼굴이었다고 밝혔다.

2. 신체적 매력성과 자존심

자존심은 개인이 자신에 관해 행하는 지속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간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로 정의되기도 한다(King, 1997). Hayes 등(1999)에 따르면 자존심은 전통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생활적응의 한 지표이자 행동의 조절인자이며, 많은 긍정적 성취, 리더십, 만족, 불안감소, 학문적 및 신체적 능력 향상 등의 사회적 행동들과 관련된다.

Mahoney와 Finch(1976)는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밝혔다. Lennon과 Rudd(1994)는 여성들의 경우 자존심은 매력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매력성은 날씬함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즉 충분히 날씬하지 않은 신체는 매력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리하여 낮은 자존심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ser(1990)는 개인이 중시하는(matters) 감정이 자존심의 중요한 부분이며, 외모관리는 개인이 중시하는 감정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존

심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Elliot(1986)는 높은 자존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낮은 자존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주시하고 자존심이 동기적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 Lennon과 Rudd(1994)는 단식이나 위험한 성형수술 등 외모 변화를 위해 고통스러운 절차들을 이용할 개연성이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을 주시하고 그러한 외모관리 행동들이 부정적인 자아-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Cash 등(1983)은 개인적인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보다 자신들의 매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Lennon et al., 1999)). Kefgen과 Touchie-Specht(1976)는 성형수술이 여성들의 자존심과 확신감을 보장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Hueston 등(1985)은 이상적인 외모성취를 위한 노력은 자존심을 상승시키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실제로, 외모를 바꾸기 위해 심미적인 성형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다른 종류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통제집단 여성들보다 더 낮은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외모관리 행동들과 자존심간의 관계를 시사하며, 자존심에 있어 차이가 외모관리 행동에 있어 차이들로 변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Fallon(1990)은 낮은 자존심의 한 결과로, 여성들은 날씬하고 젊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미용술(beauty regimens)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Kaiser(1990)는 자존심을 의복과 외모에 관련시킨 연구의 다수가 상관적이라는 것을 주시하였다. 즉, 하나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자존심이 외모나 외모에 대한 흥미의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신체적 매력성과 외모 관리행동

Aune와 Aune(1994)는 우리는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전달하고 우리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 비언어적 부호들을 조작한다고 보고, 이러한 외모관리를 인간들 사이에서의 몸치장(grooming) 혹은 모양내는 행동(preening)이라 정의하였다. Daly 등

(1983)은 외모관리 행동과 하나의 인상관리 행동으로서의 그것의 기능(작용)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성(gender)과 관계(relationship) 차이들이 외모관리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외모관리가 자존심의 상승에 기여하며 타인들의 면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보았고 개인의 외모관리를 자아향상(self-promoting) 행동으로 보았다(Aune & Aune, 1994). Dubler와 Gurel(1984)은 외모관리가 우울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기분을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Cavior와 Lombardi(1973)는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들의 신체적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성형수술을 받음으로써 정신내적 그리고 대인적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Henig(1996)은 여성들이 수세기에 걸쳐 한 특별한 시대의 미의 이상에 꼭 들어맞지 않은 모든 신체 부위 즉 입술, 눈, 귀, 허리, 두개골, 이마 및 발에 상처를 내고 조작해왔다고 밝히고, 현재의 거식증, 얼굴 성형수술 그리고 지방 흡입수술의 만연이 결코 20세기 후반의 독특한 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Henig(1996)은 우리가 이 추세들에 대해 오직 현대의 패션 산업, 영화, TV, 패션잡지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이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슬픈 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Lennon(1997)은 날씬함이 여성들의 매력성의 한 국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형이나 신체 사이즈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들에게도 같은 표준들을 적용하며 바람직한 사이즈를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식품 섭취를 감시한다고 보았고, 체중을 줄이고 더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려는 강한 욕망 때문에 다이어트 및 건강산업이 성장되어왔다고 하였다. Fallon(1990)은 아름다움의 관리는 비실용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ennon과 Rudd(1994)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미 관리에는 귀나 코를 뚫는 것, 치아교정, 뽀족한 앞 부리와 높은 굽을 가진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비실용적인 미 관리에는 가발을 착용하는 것, 매일 화장

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 혹은 신체 동작을 방해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생명을 위협하는, 혹은 위험한 미 관리에는 단식, 가슴 확대수술, 얼굴 성형수술이 포함된다. 그들은 또한 신체의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하나의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Harrison (1997)은 지난 30년 동안 식이장애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것이 임상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식이장애는 특히 서구화된 사회에서 젊은이, 백인, 중간계층 소녀들과 여성들로부터 보다 더 동등한 기회의 고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오늘날에 국한되는 현실이 아니며, 신체적 매력성이 개인의 자존심과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다는 것과 여성들은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 수단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 자존심 수준 및 외모관리 행동의 실태를 파악한 후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 및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자존심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및 자존심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외모관리 행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여성 511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대가 138명, 30대가 145명, 40대가 122명, 50대가 106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업의 경우 전업 주부 195명, 학생 104명, 직장 여성이 212명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58명, 고졸이

211명, 대졸이상이 24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는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은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며, 선행연구(Wiederman, & Hurst, 1998)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자신의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을 '아주 매력적이다'부터 '전혀 매력이 없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구체적인 신체 부위의 매력성 지각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부위 중 가시적인 매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신체 부위와 전체적인 신체비례 및 체형을 제시하여 각각의 매력성을 역시 5점 척도 위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2) 자존심은 자아-가치 혹은 자아-수용의 총체적 감정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 10문항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외모관리 행동은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거나 성형수술을 포함하여 신체에 적용하는 다양한 신체변형 수단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Diller & Marano, 1997; Lennon & Rudd, 1994)로부터 추출된 화장, 헤어관리 의복과 장신구 선택 등 일상적인 것부터 신체에 불편을 주는 것까지 22개 항목을 제시한 후 그 빈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시술되고 있는 11 가지 성형수술의 유형을 제시하여 경험과 의도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4) 기타 응답자의 배경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빈도분석, 분산분석, Duncan의 다

중범위 검증을 이용하였고,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자존심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1)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이 얼굴 매력성과 신체의 매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얼굴과 신체 각각의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점수로 하였다. <표 1>은 응답자의 얼굴과 신체의 자아지각 매력성 및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얼굴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점수는 3.17점이었고, 신체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점수는 3.05점이었으며,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점수는 3.11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신체보다는 얼굴의 매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얼굴보다는 신체에 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N=511)

매력성지각	얼굴 매력성	신체 매력성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평균(표준편차)	3.17(.62)	3.05(.62)	3.11(.55)

2) 부위별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응답자의 개괄적인 얼굴과 신체 매력성 자아지각이 정확한 것인가, 즉 이러한 개괄적인 지각이 얼굴 및 신체 각 부위의 매력성 평가가 합산된 결과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신체의 15개 부위 및 전체적인 신체 비례, 체형의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부위별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각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는 2.94점으로 산출되었다. 이 점수는 <표 1>의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 점수인 3.11점 보다 약간 낮다. 이는 신체 각 부위의 매력성 자아지각의 합이 총체적인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 자아지각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부위 중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등 주로 날씬함과 관련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매력성 평가가 더 낮았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무관한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은 자신들의 신체 부위별 매력성을 합산하여 지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의 신빙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면 이는 대상을 지각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형태 심리학 이론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신체부위별 매력성 지각

(N=511)

신체부위	매력성 지각 평균(표준편차)	순위
얼굴의 형	3.11(.88)	4
눈	3.33(.98)	1
코	3.08(.96)	5
입	3.08(.88)	5
턱	2.96(.86)	8
치아	2.92(1.06)	10
귀	3.26(.94)	2
목	3.12(.91)	3
팔	2.83(.90)	13
가슴	2.85(.93)	12
허리	2.81(.96)	14
배	2.57(.93)	17
엉덩이	2.70(.98)	15
허벅지	2.63(.97)	16
다리	2.88(1.03)	11
신체비례	2.93(.88)	9
전체적인 몸매	2.98(.88)	7
전체 평균	2.94(.54)	

3)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집단 분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응답자를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에 따라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3). 응답자의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를 빈도 분석한 결과 3점이 최빈치로 파악되었고, 점수가 3점보다 더 높은 쪽으로 치우쳐 분포된 관계로 응답자의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평균 점수는 최빈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치 대신 최빈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집단을 분류하였다.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 범위는 3.5-5점이었으며 여기에는 148명이 포함되었고, 중간 집단에는 평균점수 3점인 286명, 낮은 집단에는 평균점수 범위 1-2.5점에 속하는 77명이 포함되었다.

<표 3>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집단 분류 (N=511)

매력성 수준 분포	상	중	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	3.5-5점	3점	1-2.5점
빈도(%)	148(29.0)	286(56.0)	77(15.1)

2. 자존심

1) 자존심 점수분포

자존심이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응답자를 자존심 수준에 따라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부터 50점까지이지만 이 척도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최하점수는 23점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의 점수가 30점 대 이상에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자존심 평균점수는 36.21점으로 산출되었다.

2) 자존심에 따른 집단분류

응답자를 자존심 수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응답자의 30%를 자존심이 높은 집단으로, 40%를 중간 집단으로, 30%를 낮은 집단으로 하는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동점인 응답자로 인해 각 집단에 배분된 인원내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자존심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 수는 164명, 이들의 자존심 점수 범위는 39-50점이었고, 중간 집단

에 속하는 응답자 수는 206명, 이들의 자존심 점수 범위는 33-38점이었으며, 낮은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 수는 141명, 이들의 점수범위는 23-32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표 4> 자존심 점수에 따른 집단 분류 (N=511)

자존심수준 분포	상	중	하
자존심 점수	39-50점	33-38점	23-32점
빈도(%)	164(32.1)	206(40.3)	141(27.6)

3. 외모관리 행동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외모관리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해당 외모관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와 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를 분리하여 파악하였고, 부수적으로 앞으로 성형수술 의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 실태

응답자의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자주 실행하는 외모관리 행동은 충분한 수면, 화장, 헤어염색이나 블리치, 헤어관리제품 사용, 마사지나 팩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 운동/최신 유행 의복구입, 최신 유행 액세서리 구입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최신 의복이나 액세서리로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 화장과 더불어 얼굴과 헤어 및 피부관리 등 직접적인 신체의 텍스처 관리에 중점을 둔 외모관리 행동을 더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에 밀착되거나, 신체를 노출하거나, 신체를 비쳐 보이게 하는 의복 착용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설사제, 구토제 복용 등의 무리한 외모관리행동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의복 착용이나 극심한 다이어트나 약물 복용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모관

리 행동의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성인 여성들의 외모관리 행동이 비교적 건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 실태

(N=511)

외모관리행동	횟수	평균(표준편차)	순위
화장		3.36(1.11)	2
전체 또는 부분가발 착용		1.16(.55)	20
헤어 관리 제품 사용		2.76(1.10)	4
인조 눈썹 부착		1.27(.68)	18
운동(수영,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달리기, 조깅, 요가...)		2.66(1.23)	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문화)생활		2.70(1.08)	7
기능성 속옷 착용		1.90(1.18)	14
피부관리제품(기능성 화장품)사용		2.73(1.28)	6
머리 염색이나 블리치		2.79(1.09)	3
피부관리(맛사지나 팩)제품 사용		2.74(.99)	5
손톱, 발톱 관리		2.15(1.12)	13
최신 유행 의복 관리		2.66(1.04)	8
최신 유행 악세서리 구입		2.27(1.05)	11
답 높은 구두 착용		2.29(1.17)	10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 착용		1.67(.91)	16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 착용		1.88(.96)	15
신체가 비쳐 보이는 의복 착용		1.47(.78)	17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2.18(1.16)	12
체중감소를 위한 설사제 복용		1.22(.66)	19
체중감소를 위한 구토제 복용		1.08(.43)	22
체중감소를 위한 흡연		1.10(.46)	21
충분한 수면		3.48(1.06)	1

2)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

여성들의 외모관리 행동 중 고통스럽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미 관리로 분류되고 있고(Lennon & Rudd(1994),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빚기도 하는 성형수술의 실행 경험이 있는가와 현재까지 수술경험이 없지만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서라면 성형수술을 해볼 의도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각 유형의 성형 수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예측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쌍꺼풀, 눈썹문신 등 비교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유형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한 시대의 미의 이상에 들어 맞지 않는 신체부위에 상처를 내어 조작해왔고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해왔다고 밝힌 Heing(1996)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성형수술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성형수술 경험에 비해 성형수술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건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이들의 의도가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

(N=511)

성형수술유형	경험과 의도	경험	의도
지방흡입		0	122(23.9)a
가슴확대		1(.2)	71(13.9)
치아교정		39(7.6)	129(25.2)
코		13(2.5)	111(21.7)
쌍꺼풀		87(17.0)	135(26.4)
눈썹문신		80(15.7)	62(12.1)
각진 턱뼈 성형		2(.4)	54(10.6)
얼굴 박피술		15(2.9)	125(24.5)
키 확대		1(.2)	108(21.1)
주름살 제거		16(3.1)	144(28.2)
라식수술		21(4.1)	142(27.8)

a : 빈도(%)

4.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자존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의 자존심이 가장 높았고 낮은 집단의 자존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지각이 자존심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밝힌 Mahoney와 Finch(1976)

의 연구, 여성들의 경우 자존심은 매력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고 밝힌 Lennon과 Rudd(1994)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자존심이 정신적, 사회적 생활적응의 지표이자 행동의 조절인자이며 많은 긍정적 성취, 리더십, 만족, 불안 감소 및 학문적, 신체적 능력 향상과 관련된다는 Hayes 등(1999)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개인의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 못지 않게 개인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적 매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과 자존심과의 관련성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Kaiser(1990)가 지적했듯이 자존심이 외모관리 행동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의 해당 외모관리행동의 빈도가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빈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 기능성화장품 사용, 맛사지나 팩 사용, 최신 유행 의복구입에서 집단 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외모관리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스트레스를 위한 취미생활, 손톱과 발톱관리, 최신 유행 액세서리 구입에서도 집단 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의 빈도가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 착용과 신체가 비쳐 보이는 의복 착용의 경우에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과 중간집단의 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다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한 외모관리 행동을 더 자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신체를 위장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착의에 많은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던 Kefgen과 Touchie-Specht(1976)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신체의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Lennon과 Rudd(1994)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외모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온 여성들이 그러한 외모관리의 결과로 더 매력적인 신체를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더 높게 지각하게 된 결과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여성들이 실제로 다 돌보이는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및 색을 이용하고자 하는 빈도가 그들에게 부족한 곳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던 Rand와 Hall(1983)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외모관리를 더 자주 해온 결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7>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자존심 차이 (N=511)

매력성수준 자존심	상 (N=148)	중 (N=286)	하 (N=77)	F값
평균(표준편차)	38.59 (5.27)	35.77 (4.67)	33.27 (5.25)	31.90***
	A	B	C	

***: $P < .001$

5.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매력성 자아지각 수준에 따라 분리된 집단 간 유형별 외모관리 행동과 성형수술 경험 및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 차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유형별 외모관리 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가발 착용, 인조눈썹 부착,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설사제 복용, 구토제 복용 및 흡연을 제외한 15개 외모관리 행동에서 집단 간 $p<.05$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적으

<표 8>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차이

(N=511)

외모관리행동	매력성 지각 수준		상 (N=148)		중 (N=286)		하 (N=77)		F
화장	3.64aA	1b	3.32 B	2	2.97 C	2	9.94***		
전체 또는 부분가발 착용	1.18		1.16		1.10		.52		
헤어관리 제품 사용	2.95 A	7	2.72 AB	4	2.51 B	4	4.51**		
인조눈썹 부착	1.35		1.25		1.16		2.25		
운동(수영,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달리기, 조깅, 요가...)	2.95 A	7	2.59 B	8	2.38 B	6	6.6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	3.03 A	5	2.60 B		2.39 B	5	11.86***		
기능성 속옷 착용	2.11 A		1.81 AB		1.83 B		3.52*		
피부관리 제품(기능성화장품)사용	3.14 A	3	2.64 B	6	2.25 C	9	14.66***		
머리염색이나 블리치	2.94	9	2.76	3	2.65	3	2.17		
피부관리 제품(맛사지나 팩)사용	3.05 A	4	2.72 B	4	2.22 C	10	19.09***		
손톱, 발톱 관리	2.45 A		2.05 B	10	1.97 B		7.51***		
최신 유행 의복 구입	2.97 A	6	2.60 B	7	2.30 C	7	12.42***		
최신 유행 악세서리 구입	2.53 A	10	2.21 B		2.01 B		7.37***		
굽 높은 구두 착용	2.48 A		2.26 AB	9	2.04 B		3.84*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 착용	1.86 A		1.60 B		1.67 B		4.73**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 착용	2.08 A		1.85 A		1.60 B		6.84***		
신체가 비쳐 보이는 의복 착용	1.68 A		1.85 A		1.60 B		7.66***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2.22		2.12	10	2.30	7	.86		
체중감소를 위한 식사제 복용	1.27		1.19		1.25		.75		
체중감소를 위한 구토제 복용	1.13		1.06		1.10		1.50		
체중감소를 위한 흡연	1.13		1.09		1.12		.42		
충분한 수면	3.64 A	1	3.47 AB	1	3.25 B	1	3.51*		

a : 평균 b : 순위, * : p< .05 ** : p< .01 *** : p< .001

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 차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집단 간 성형 수술 경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지방 흡입, 가슴 확대 등 응답자 수가 전혀 없거나 너무 적은 8개 유형의 성형수술을 제외하고 치아교정, 쌍꺼풀 수술, 눈썹 문신에 대해서만 χ^2 검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분석된 3개 유형의 성형수술 경험에 있어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은 집단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표 8>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 응답자들의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과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예측되는 성형수술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 의도에서는 지방 흡입을 비롯하여 코, 쌍꺼풀, 얼굴 박피술, 키 확대 수술에서 집단 간 p<.05 수준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의 성형수술 의도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의 성형수술 의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낮게 지각하는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켜 보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하는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따른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 차이

(N=511)

성형수술유형	매력성 지각	상	중	하	x ²
		(N=148)	(N=286)	(N=77)	
지방흡입	경험	0	0	0	12.51***
	의도	24(15.1)a	50(24.6)	48(32.2)	
가슴확대	경험	0	0	1(1.3)	5.93
	의도	28(17.6)	19(9.4)	24(16.1)	
치아교정	경험	17(22.6)	17(5.9)	5(6.5)	4.51
	의도	34(21.4)	49(24.1)	46(30.9)	
코	경험	5(3.4)	6(2.1)	2(2.6)	4.19*
	의도	30(18.9)	40(19.7)	41(27.5)	
쌍꺼풀	경험	28(18.9)	51(17.8)	8(10.4)	2.91
	의도	33(20.8)	51(25.1)	51(34.2)	
눈썹문신	경험	22(14.9)	43(15.0)	15(19.5)	1.01
	의도	14(8.8)	23(11.3)	25(18.6)	
각진 턱 뼈 성형	경험	0	2(.7)	0	5.03
	의도	11(6.9)	21(10.3)	22(14.8)	
얼굴 박피술	경험	7(4.7)	6(2.1)	2(2.6)	9.80*
	의도	30(18.9)	47(23.2)	48(32.2)	
키 확대	경험	0	1(.3)	0	6.34*
	의도	28(17.6)	38(18.7)	42(28.2)	
주름살 제거	경험	6(4.1)	7(2.4)	3(3.9)	5.95
	의도	34(21.4)	60(29.6)	50(33.6)	
라식수술	경험	10(6.8)	8(2.8)	3(3.9)	3.02
	의도	50(31.4)	48(23.6)	44(29.5)	

a : 빈도(%) * : p< .05 ***: p< .001

5. 자존심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자존심이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존심이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자존심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외모관리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화장, 충분한 수면, 헤어관리제품 사용,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 등의 10유형의 외모관리 행동 빈도에서 집단 간 p<.05 수준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체중 감소를 위한 흡연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집단의 외모관리 행동 빈도가 자존심이 낮은 집단의 빈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인 외모성취를 위한 노력이 자존심을 상승시키는 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의 차이가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로 변환될 수

있다고 하였던 Hueston 등(1985)의 추정을 부분적으로 실증해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맛사지나 팩 사용 빈도에서 자존심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의 경우 자존심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으며, 헤어관리제품 사용, 최신 유행 의복과 액세서리 구입 등에서도 세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존심 수준이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아가간 연구가 필요하다

<표 10> 자존심에 따른 전반적인 외모관리 행동 차이

(N=511)

외모관리 행동	자존심 수준		상 (N=164)		중 (N=206)		하 (N=141)		F
	상	중	상	중	상	중	하		
화장	3.60a A	1b	3.35 B	2	3.10 C	2	8.07***		
전체 또는 부분가발 착용	1.15		1.18		1.13		.46		
헤어관리 제품 사용	3.01 A	3	2.72 AB	6	2.52 B	5	7.81***		
인조눈썹 부착	1.24		1.33		1.20		1.90		
운동(수영,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달리기, 조깅, 요가...)	2.95 A	5	2.63 B	9	2.37 C	9	8.8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	2.93 A	6	2.67 B	7	2.46 B	6	7.54***		
기능성 속옷 착용	2.93	6	1.98		1.76		1.49		
피부관리 제품(기능성화장품)사용	2.96 A	4	2.74 A	5	2.44 B	8	6.54**		
머리염색이나 블리치	2.84	10	2.87	3	2.62	3	2.36		
피부관리 제품(맛사지나 팩)사용	2.87 A	8	2.79 A	4	2.53 B	4	4.75**		
손톱, 발톱 관리	2.30		2.15	10	1.99		2.87		
최신유행의복 구입	2.85 A	9	2.65 AB	8	2.46 B	6	5.36**		
최신 유행 악세서리 구입	2.43 A		2.28 AB		2.09 B		3.91*		
굽 높은 구두 착용	2.26		2.40	10	2.17	10	1.69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 착용	1.69		1.69		1.61		.38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 착용	1.95		1.87		1.82		.70		
신체가 비쳐 보이는 의복 착용	1.48		1.50		1.41		.68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2.31		2.17		2.04		2.17		
체중감소를 위한 설사제 복용	1.21		1.21		1.26		.24		
체중감소를 위한 구토제 복용	1.07		1.07		1.13		1.01		
체중감소를 위한 흡연	1.03 B		1.15 A		1.12 AB		3.22*		
충분한 수면	3.56	1	3.52	1	3.33	1	3.73*		

a : 평균 b : 순위, * : p< .05 ** : p< .01 *** : p< .001

2) 자존심이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심이 성형수술의 경험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자존심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 성형수술의 경험과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쌍꺼풀과 눈썹 문신 경험에 있어서만 자존심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p<.05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존심이 중간인 집단의 수술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성형수술의 의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개념이 단식이나 위험한 성형수술 등 외모 변화를 위해 고통스러운 절차들을 이용할 개연성과 관련된다고 밝힌

Lennon과 Rudd(199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존심이 낮은 여성들이 날씬하고 젊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미용시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 Fallon(1990)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외모를 바꾸기 위해 심미적인 성형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다른 종류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통제집단 여성들보다 더 낮은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한 Hueston 등(1985)의 결과와도 배치된다.

<표 11> 자존심에 따른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차이

(N=511)

자존심 수준		상 (N=164)	중 (N=206)	하 (N=141)	χ^2
지방흡입	경험	0	0	0	
	의도	35(21.3)a	52(25.2)	35(24.8)	.86
가슴확대	경험	0	1(.5)	0	
	의도	26(15.9)	32(15.5)	13(9.2)	3.56
치아교정	경험	14(8.5)	19(9.3)	6(4.3)	3.24
	의도	37(22.6)	54(26.2)	38(27.0)	.95
코	경험	4(2.4)	8(3.9)	1	
	의도	29(17.7)	46(22.3)	36(25.5)	2.82
쌍꺼풀	경험	22(13.4)	50(24.3)	15(10.6)	13.24***
	의도	41(25.0)	55(26.7)	39(27.7)	.29
눈썹문신	경험	21(12.8)	44(21.4)	15(10.6)	8.77*
	의도	14(8.5)	26(12.6)	22(15.6)	3.63
각진 턱뼈 성형	경험	0	1(.5)	1(.7)	
	의도	18(11.0)	20(9.7)	16(11.3)	.28
얼굴 박피술	경험	7(4.3)	6(2.9)	2(1.4)	
	의도	39(23.8)	50(24.3)	36(25.5)	2.79
키 확대	경험	0	1(.5)	0	
	의도	35(21.3)	41(19.9)	32(22.7)	.40
주름살 제거	경험	4(2.4)	10(4.9)	2(1.4)	
	의도	37(22.6)	68(33.0)	39(27.7)	4.95
라식수술	경험	5(3.0)	12(5.8)	4(2.8)	
	의도	50(30.5)	48(23.3)	44(31.2)	3.48

a : 빈도(%), * : p< .05 ***: p< .001

V. 결 론

본 연구는 우선 성인 여성들의 신체적 외모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 및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자존심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먼저 대다수의 여성들이 충분한 수면, 화장, 헤어 염색이나 블리치, 헤어관리 제품 사용, 맛사지나 팩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스트레스를 위한 취미생활, 운동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더 자주 하고 있고,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설사제와 구토제 복용 및 흡연, 성형수술 등 위험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극단적인 외모관리 행동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고,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에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더 높고, 대다수의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위험과 고통을 수반하는 성형수술 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은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쌍꺼풀과 눈썹 문신을 제외한 성형수술 경험과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외모관리 행동은 건전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극심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폐해 사례처럼 우려할 정도로 극단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유형의 성형수술 경험보다 성형수술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수

적인 결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들의 의도가 실행으로 옮겨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현대의 패션 산업, 영화, TV, 패션잡지의 영향이 이들의 성형수술 의도를 실행으로 유도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인으로서 성취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지닌 모델을 이용한 반복적인 패션제품 광고가 위험을 수반하는 외모 관리 행동의 원인이라는 메스컴의 고발은 타당성을 갖는다. 신체적 매력성이 개인적, 대인적 측면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한 외모관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신체미의 이상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의 자제는 물론 이들 매체에 대한 여성들의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 신체적 외모 향상을 위한 여성들의 관심과 노력은 자존심의 상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을 포함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형적인 아름다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타인의 신체적 매력성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개인의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고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 1) 심정은 ·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의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
- 2) 이경화 · 류은정 (2001). 여대생의 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1(8), pp. 51-60.
- 3) 이승희 · Nancy A. Rudd, 김재숙 (2001). 바디이미지 연구(제1보): 한.미 여성의 이상적 미, 바디 이미지와 외모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969-980.
- 4) 정명선 · 김재숙 (2001).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의복적절성이 호감도, 특질 판단을 매개하여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8), pp. 77-91.
- 5) 정재은 ·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pp. 159-169.
- 6) 황진숙 (2000). 노년층 남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8), pp. 1187-1196.
- 7) Aune, R., & K., Aune, K.S.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tu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2), pp. 258-272.
- 8) Berscheid, E., & Walster, E.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Cann, A.(1991). Stereotypes about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based on soci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 inform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2), pp. 225-231.
- 9) Bloch, P.H., & Richins, M.L.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In Lennon, S. & Rudd, N.A. (1994).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2), pp. 94-117.
- 10) Bruch, M.A., Berko, E.H., & Haase, R.F. (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pp. 84-97.
- 11) Cash, T.F., Cash, D.W., & Butters, J.W. (1983). Mirror, mirror on the wall ...? :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pp. 351-358.
- 12) Cavior, N., & Lombardi D.A. (1973). Developmental aspects of judgment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1), pp. 67-71.
- 13) Chen, I. (2000). Making peace with your body. *Health*, 14(9), pp. 108-125.
- 14) Daly, J.A., Hogg, E., & Burns, S. (1997). Sex and relationship affect social self-grooming.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 pp. 183-189.
- 15) Diller, V., & Marano, H.E.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survey. *Psychology Today*, 30(5), pp. 62-67.
- 16) Dubler, M.L., & Gurel, L.M. (1984). Depression: Relationships to clothing and appearance self-concep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13, pp. 21-26.
- 17) Elliot, G.C. (1986). Self-esteem and self consisten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pp. 218-297.
 - 18) Fallon, A. (1990). *Culture in the mirror: Sociocultural determinants of body image*. In Lennon & Rudd(1994).
 - 19) Gabriel, M.T., Critelli, J.W., & Ee, J.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 pp. 145-155.
 - 20) Garcia, S.D. (1998). Appearance anxiety, health practices, metaperspectives and self-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3(2), pp. 307-318.
 - 21) Harrison, K.(1997). Does interpersonal attraction to thin media personalities promote eating disorde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4), pp. 478-500.
 - 22) Hayes, S.D., Croker, P.R.E., & Kowalski, K.C.(1999).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self-perceptions, global self-esteem and physical activity: evaluation of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odel. *Journal of Sport Behavior*, 22(1), pp. 1-13.
 - 23) Henig, R.M. (1996). The price of perfection. *Civilization*, 3(3), pp. 56-61.
 - 24) Hueston, J., Dennerstein, L., & Gotts, G. (1985). Psychological aspects of cosmetic surgery.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4, pp. 335-346.
 - 25) Kaiser, S.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Co. 174-175, pp. 420-424.
 - 26) Kefgen, M., &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A guide for the consume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pp. 37-42.
 - 27) King, K.A. (1997). Self-concept and self-esteem: a clarification of terms. *Journal of School Health*, 67(2), pp. 68-70.
 - 28) Lennon, S.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pp. 195-203.
 - 29) Lennon, S.J.(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further evid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pp. 60-64.
 - 30) Lennon, S.J., Lillethun, A., & Buckland, S.S. (1999). Attitudes toward social comparison as a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4), pp. 379-405.
 - 31) Lennon, S. & Rudd, N.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2), pp. 94-117.
 - 32) Littrell, M.A., Damhorst, M.L., & Littrell, J.M. (1997). Clothing interests, body satisfaction, and eating behavior of adolescent females: related or independent dimensions? *Adolescence*, 25(97), pp. 77-94.
 - 33) Mahoney, E.R., & Finch, M.D.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 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92, pp. 277-279.
 - 34) Morton, G.M. (1966). *The arts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pp. 30-44.
 - 35) Rand, C., & Hall, J.A. (1983). Sex differences in the accuracy of self-perceived attractiven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pp. 359-363.
 - 36) Thornton, B., & Moore, S. (1993). Physical attractiveness contrast effect: Implications for self-esteem and evaluations of the social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pp. 474-480.
 - 37) Thornton, B., & Ryckman, R.M. (1991).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ttractiveness, physical effectiveness, and self-esteem: Across-sectional analysis among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ce*, 14, pp. 85-98.
 - 38) Wiederman & Hurst, S.R. (1998). Body siz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among young adult women: relationships to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esteem.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3), pp. 272-282.